“금강산 신계사랑 법기암 노닐다 가련다”

圓寂 혜해 스님과 금강산의 특별한 인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5월 31일 오후 9시 30분 입적
“유골은 금강산에…”유언 남겨
北 금강산 신계사 암자서 출가
복원 당시 80대 고령에도 방북
민추본, 사리탑 조성 적극 지원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당시 방북한 혜해 스님(사진 앞쪽)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보주당 혜해 스님은 1921년 4월 27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1남 3녀 중 삼녀로 태어났다. 1944년(24세)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서 대원 스님을 은사로 행자 생활을 시작, 6개월 후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금강산 유점사에서 참선했다. 해방 이후 1946년 10월 수행의 길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와 무불 스님을 계사로 오계를 수지하고,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효봉 스님과 성철 스님, 청담 스님, 향곡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을 따라 한평생 수행에 매진해 후학들의 귀감이 됐으며, 선정에 든 혜해 스님의 몸에서 불꽃이 방광(放光)하는 등의 일화가 알려져 세간의 존경을 받기도 했다. 1971년 이차돈 성사의 순교지인 천경림 흥륜사에 비구니 선원인 천경림 선원을 개원, 1980년부터 천경림 선원장 소임을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죽비를 놓지 않고 정진 대중을 외호했다.

“나는 5월 31일 밤 9시30분에 가련다.”

“스님, 9시면 9시지 왜 9시 30분이죠?”

“30분은 금강산 신계사랑 법기암 들러 노닐다 갈라고 그러제.”

한반도 분단 역사의 산 증인이이자 조계종 비구니 원로 보주당 혜해 스님이 법랍 77세, 세납 100세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5월 31일 오후 9시 30분, 예견했던 그 시간이었다. “유골은 금강산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혜해 스님의 출가사찰은 효봉 스님의 오도처로 알려진 북한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이다. 해방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한평생 수행에 매진하면서도 스님은 금강산을 잊지 못했다. 스님에게 금강산 신계사는 초발심의 상징이자 회향의 공간이었으며, 또 애틋한 그리움이었다.

2004년 남북불교계 협력으로 신계사 복원이 이뤄지자 스님은 환희심을 감출 수 없었다. 83세 고령에도 수시로 방북해 신계사를 찾았으며, 한번 방북하면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머무르며 손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하고 잡초를 정돈했다. 남측 사람들을 경계하며 거리감을 유지하던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도 혜해 스님만큼은 ‘금강산 스님’이라고 부르며 남다른 존경심과 친근함을 보였다. 북측 관계자들의 배려로 출가사찰인 법기암 터에 올라 과거를 회상하고 참선하며 삼매에 들기도 했다.

방북 당시 시자로 함께했던 상좌 성본 스님에 따르면 혜해 스님은 신계사 복원 관련 수시방북초청자로, 복원이 진행되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십여차례 방북했다. 성본 스님은 “전각이 하나하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참 행복해 하셨다”며 “‘금강산에서 출가했으니 금강산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 고 항상 말씀하실 정도로 신계사를 각별하게 여기셨다”고 회상했다.

복원 당시 신계사에서 한달간 머물며 봉사했던 김효례(백련화) 보살은 “혜해 스님은 그 존재만으로 큰 감동이었다”고 기억했다.

“신계사 대웅보전이 완공되고 법왕루 불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어요. 법랍이 높은 큰 스님이라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천진하시던지, 내 평생 그런 스님은 정말 처음 봤어요. 상좌 스님들과 함께 법당에 참배하고 공양물을 올리시고는 ‘황성옛터’를 부르셨지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노래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해서 펑펑 울었거든.”

혜해 스님의 마지막 방북은 2007년 10월 13일 신계사 낙성법회다.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방북이 불가능해졌고, 금강산 신계사는 다시 스님의 마음 속 그리움으로 남았다.

혜해 스님의 다비식에는 햇무리가 장엄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엔 영롱한 에메랄드 빛깔의 사리 30여과가 남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은 “스님의 사리는 더없이 영롱한 빛으로 스님의 높은 수행력과 고귀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며 “문도와 함께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법구와 사리 일부가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 안치될 수 있도록 민추본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혜해 스님의 드높은 원력이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불교교류의 상징 신계사에 또 다른 상징으로 혜해 스님의 사리탑이 우뚝 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혜해 스님은 정말 금강산에 올라 노닐었을까. 성본 스님은 “우리 스님은 정말로 신계사도 가보시고 법기암도 가보시고 하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故선진규 원장 마지막까지 수행정진 당부

별세 2일 전 반조(返照)서 유언 남겨
6월 8일 87세 일기로 별세해
재가불교사회운동 이끈 주역


선진규 정토원장 영결식이 6월 11일 김해 진영전문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 모습.

불교 계몽 운동가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이 수행에 대한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고 별세했다. 선진규 정토원장 영결식은 6월 11일 김해 진영전문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선진규 원장 별세 2일 전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선건 정토원 사무장은 “임종 보름 전부터 주스로 곡기를 연명하시다 기운을 조금 차리자 사부대중을 위한 마지막 당부를 쪽지에 적으셨다”며 ‘정토원 사부대중 수행 수칙’과 ‘수행 목표’를 담은 유언을 낭독했다. 선 원장은 수행수칙으로 △나 자신이 나에게 미안한 일하지 말자 △남에게 욕먹을 언행 하지 말자 △한 없이 능력껏 베풀되 돌아보지 말자를 제안했고, 수행목표로 △모두 존경 받는 신자가 되자 △바른 언행으로 참다운 불자가 되자 △‘나무아미타불’ 일심청명으로 모두 불보살이 되자 등의 가르침을 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해 경남 일대 스님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문재인 대통령도 별도로 선진규 원장의 영면을 애도했다.

한편, 선진규 정토원장은 6월 8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4년 김해에서 태어난 선진규 원장은 평생을 불교운동에 매진한 재가 선지식으로, 1955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 당시 31명의 불교학과 청년불자들과 함께 ‘호미 든 관음성상’ 조성을 시작하며 새로운 불교계몽운동을 선언했다.

이후 포교에 진력해 봉화산 정토원을 설립했으며 1972년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선발됐다. 대한불교청년회 제10대, 11대 회장을 역임하고 1983년 김해 봉화산수련원을 설립해 청소년 포교에 매진했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8대 회장과 동국대 객원교수, 동국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고인은 노무현 캠프 전국불교대책위원장을 맡을 만큼 故노무현 대통령과는 높은 친분을 가졌으며, 故 노무현 대통령과 故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 법석을 매년 봉행해왔다.

선진규 원장의 초재는 6월 14일 정토원에서 봉행됐으며, 막재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해=하성미 기자

〈관련 추모칼럼 6면〉

중앙신도회장에 주윤식 씨 단독 입후보

선관위 통과… 25일 선출 예정



조계종 제27대 중앙신도회장에 주윤식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사진〉이 단독 입후보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두형)는 6월 8일 심사회의를 열고 주윤식 조계종 8교구 신도회장의 후보 자격을 확정했다.

주윤식 신도회장(법명 덕산)은 대구 중견기업 ‘우진’ 대표로 2019년 중국업체들과 3000억 합작사업을 따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윤식 신도회장은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1993년 법상 스님을 전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2017년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2019년 4월부터 신도 3000명이 하루 100원으로 교구 스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승보공양운동을 펼쳐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여 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김천과 구미, 상주 등 말사 70여곳을 아우르는 교구통합 성지순례를 기획하여 정기 모임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제26대 중앙신도회장인 이기흥 회장 임기가 9월 30일 끝남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한다는 회칙과 규정에 의거해 27대 회장 선출을 공고한 바 있다. 중앙신도회장 선거는 6월 2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